

레드리본센터 개선에 즈음하여

글 김준명 · 본호 부호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국내 에이즈 역사는 어느덧 20년이 넘어 섰다. 최근에 에이즈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실제 국내 감염자 수가 만 명을 조금 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며, 또한 동성 간의 성접촉이 중요한 전파경로라 생각하고 있다. 이제 에이즈는 하나의 만성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감염자들에게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한다면 비록 감염이 되었다라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으로 밝혀지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자포자기와 절망과 같은 정신적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둔해지면서 경제적인 빈곤과 그로 인한 치료 지연으로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염자들은 가족과 분리되고 연락이 끊기면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또는 감염자들끼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국내 신규 감염인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할 20대부터 40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의료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감염인 지원을 통해 감염인을 하나의 사회 구성



원으로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 감염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극히 미약하다 하겠으며, 그러나 전국에 요양 센터가 7개소 있으나 주위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고, 이용인원도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어 왔다. 다시 말해서 많은 감염인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전부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다행히도 2006년도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시행되는 에이즈 감염인 지원센터인 레드리본센터의 개선 및 운영은 이 시점에 부적의의 있는 사업

이라 하겠으며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사업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레드리본센터는 감염인 상담사업, 건강증진사업, 자활지원사업, 인권증진사업, 편견차별 해소 홍보사업 등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감염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활을 통해 사회에 재진출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에이즈의 전파는 감염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단순하면 서로 근본적인 사실을 감안할 때 감염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은 감염인 복지 증진뿐만이 아니라, 에이즈 확산 방지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다.